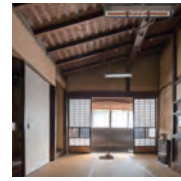




弘前忍者屋敷  
Ninja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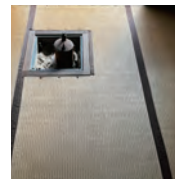


### 히로사키닌자 집

- '히로사키 닌자 집'은 일본에서 유일하게 현존하는 번 관리의 고가류 닌자 집으로 호레키 11 (1761)년 이후 에도시대 후기부터 존재해 왔다고 합니다. 이 집은 닌자 가문의 주거지로 사용되었던 것이 아니라 '하야미치노모노'이라고 불리는 히로사키 번의 닌자 집단이 주로 정보를 교환하는 초소로 사용되었습니다.
- 이 집이 사용된 시대는 전란의 시대가 아니라 다투어 비교적 적은 평화로운 시대였기 때문에 반전 등 적의 의표를 찌르는 큰 장치들은 보이지 않습니다. 그래서 진짜 닌자 집의 모습을 이곳에서는 볼 수 있다고 합니다.
- 집 안에는 닌자 발견기와 벽 뒤의 숨겨진 공간, 저택 밖을 감시했다고 생각되는 망창 등 곳곳에서 닌자 집만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. 그 밖에도 약초를 말리고 있던 잡히는 못 자국도 다수 남아 있어 당시 닌자의 생활 모습도 접할 수 있습니다.

### 히로사키 번 닌자 집단 '하야미치노모노'

- 이 집을 거점으로 활동하던 '하야미치노모노'란 쓰가루 4대 번주 쓰가루노부마사. 그 사람은 에도에서 고가류 닌자 나카가와와 코하야토 등을 가신으로 모집하여 히로사키 번 닌자 그룹을 형성했습니다. 히로사키 번의 분한장(번사명부)에는 '하야미치노모노'라고 적혀 있고, 약 60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.
- 하야미치노모노는 에이지(훗카이도)에서 마쓰마에번과 아이누 사람들의 동향 조사나 영내 치안 유지, 국경 경비, 타번에서의 첩보 등 다양한 비밀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.
- 연보 2(1674)년 창설된 이후 일시적인 해산, 재결성을 거치면서도 하코다테 전쟁이 종결된 메이지 3(1870)년까지 존속, 무려 196년간 지속되었습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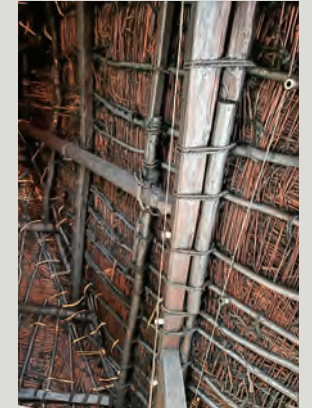


# 弘前忍者屋敷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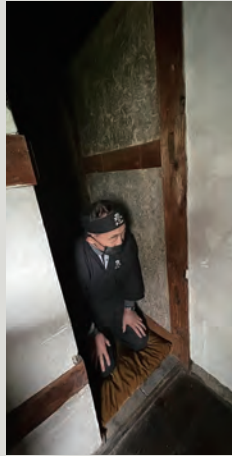
에도시대 후기에 세워져 메이지2(1869)년 고지도에 남는 무나카나 카키치 나 하야미치노모노 일족이 관리자로서 기록이 남아 있으며, 레이와 4(2022)년 봄부터 '히로사키닌자 집'으로 영업하고 있습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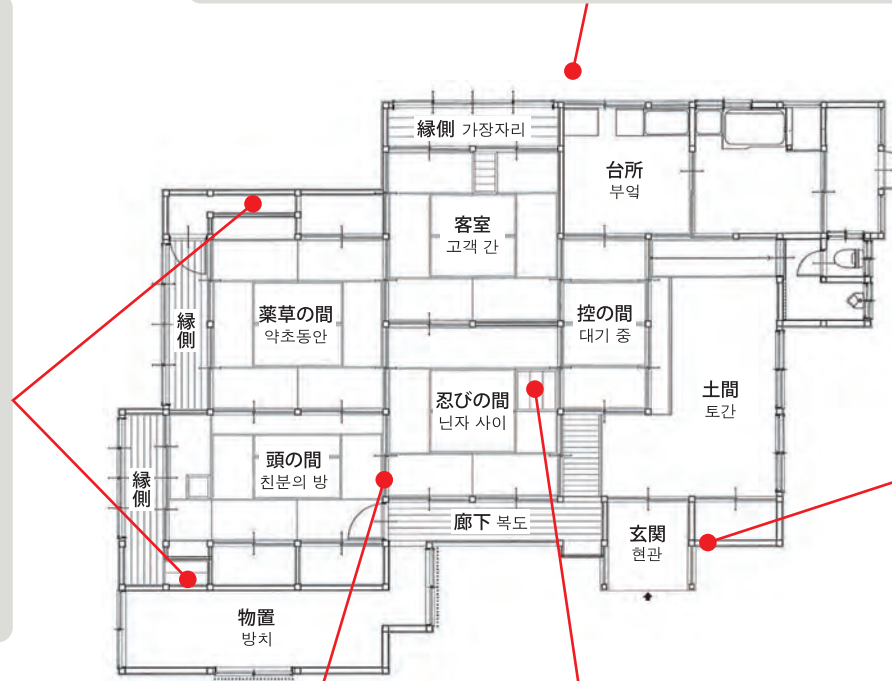
에도 시대 조카마치를 분할할 때 집의 땅은 시게모리 산을 무너뜨리고 정비된 땅입니다. 집 뒤에는 작은 산이 남아 있고, 히로사키 시내에서 현재는 볼 수 없는 자연 식물이 지금도 자라고 있습니다. 약 50년 전 저택 근처에는 투구꽃속(맹독)이 예쁜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. 닌자가 약초나 독초를 기르고 있었겠지요.



집 내부의 지붕은 초가지붕으로 되어 있고, 이 위에 함석지붕이 씌워져 있어 외관만으로는 알 수 없었습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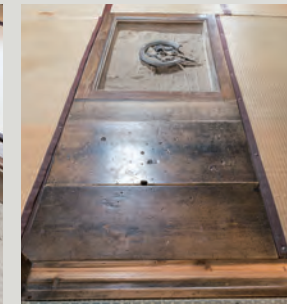
방의 바닥 아래에는 가로 92cm, 세로 54cm, 높이 약 2m의 공간이 있습니다. 바닥에는 손가락을 넣을 수 있는 구멍이 뚫려 있어 저택이 침입하면 바닥을 떼어내 밖으로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.



입구를 들어가 뒤를 돌아볼 때 밖을 내다볼 수 있는 망루 창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.



예전 집 주인이 "선대가 집을 구입했을 때 집안에는 약 냄새가 진동했다"고 전합니다. 실내의 횡랑 부분에는, 많은 못 구멍이 남습니다. 약이 되는 약초를 말린 것으로 보입니다. 닌자는 약초와 화약에 매우 익숙합니다.



장지문을 열고 다다미 거실로 들어가는 입구 한쪽 구석 만이 마루입니다. 밟으면 '끼익!' 소리가 납니다. 침입자를 알리는 임시방편입니다.